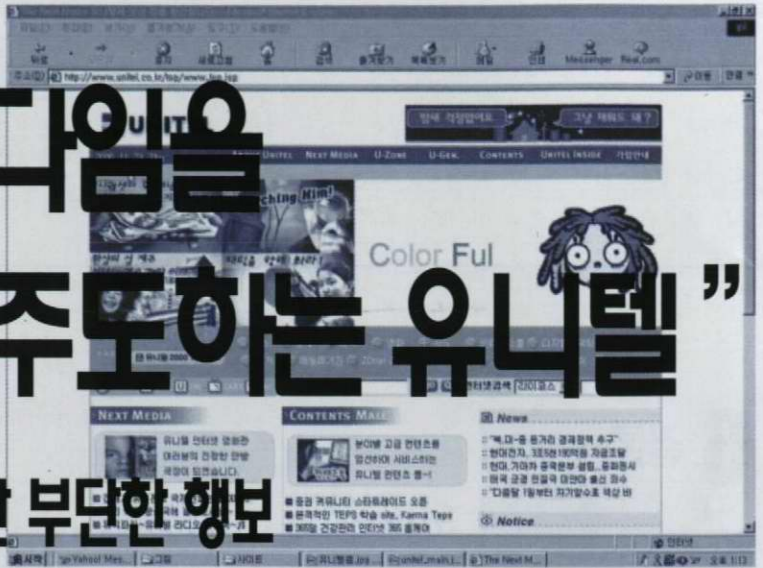


“통신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유니텔”

종합 인터넷 기업을 향한 부단한 행보



글 백승오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 업계의 리더 ‘유니텔’을 찾아보았다.

신개념 인터넷 포털로

통신 시장의 변화는 여느 산업보다 변화가 빠르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콘텐츠가 쉴새 없이 생겨나고 한발이라도 뒤처지면 경쟁력을 상실하는 최첨단의 시장이다.

유니텔은 이러한 통신시장의 빠른 변화를 주도하는 선봉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부단한 연구 개발과 시장예의 접목을 통해 시장 변화에 한발 앞서 대처한다는 것, 그것을 통한 변화의 주도가 목표다. 통신시장은 PC통신을 넘어 인터넷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유니텔은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종합 인터넷 기업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모바일, 영상, ME콘텐츠 분야를 강화 인터넷 시장에서도 강세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유니텔은 거쳐가는 허브가

아니라, 머물러 있는 종합 정거장으로서의 신개념 인터넷 포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바일 등 다양한 콘텐츠 확보

유니텔은 ISP업체는 무엇보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서비스에 나섰다. 유니텔이 최근 선보인 콘텐츠를 보면 모바일을 비롯해 커뮤니티 콘텐츠를 보강해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할 만한 것들을 선보였다.


우선, 유니텔은 유니웹센터(www.unitel.co.kr)를 전면 개편해 사용용이성을 높였다.

이는 인터넷 상에서 보다 많은 네티즌을 대상으로 유니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며, 유니텔 회원들이 웹센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유니텔 온라인의 주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웹센터는 유니텔 패밀리 사이트를 하나로 묶어 한번의 이용자 확인만으로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싱글 사인 온(Single Sign-On)’ 서비스가 특징이다.

이밖에 유니텔온라인은 모바일, 보이스

및 영상, ME (멀티미디어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강화를 3대 축으로 유니텔의 다양한 인터넷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지난 일 년간 100억여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투자해 개발한 국내 최대의 동영상 콘텐츠를 갖춘 ‘인터넷영화관’을 개설함과 아울러 ‘보이스 포털 서비스’ ‘모바일 포털 서비스’ ‘유니텔 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서비스’ 등을 네티즌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이 밖에 개방형 유료 콘텐츠 몰인 ‘CP MALL’을 구축하고 24 가지의 과금이 가능한 지불 시스템인 ‘유니포켓’을 개발해 과금불안을 말끔히 해소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영상전화 서비스 등을 오픈 할 예정이며 이 모든 콘텐츠와 시스템이 완비되는 연말쯤에는 국내 최대의 멀티미디어 커뮤니티 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책적 소외가 안타깝죠”

▶최근들어 PC통신 시장이 여러 면에서 급변하고 있는데 변화의 추이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PC통신의 상품성을 크게 대변해보면 전화망에 의한 인터넷접속서비스와 콘텐츠 및 커뮤니티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접속서비스부문은 초고속망의 저가화 및 보급활성화로 기존의 다이알업에 의한 접속서비스는 상품성을 잃고 있으며 콘텐츠서비스부문은 인터넷상의 무료콘텐츠사업자들의 난립으로 이 또한 고전 중이다.

그러나, 초고속망이 아직 전국규모로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은 점이나 다이알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싼 점등이 아직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무료 콘텐츠사업자들도 최근에 점차 유료화가 진행중에 있어 PC통신의 콘텐츠 및 커뮤니티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이용자들의 니즈는 초고속의 인터넷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와 커뮤니티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추세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PC통신사업자도 ISP사업자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어느 접속망으로부터 들어온 이용자든 간에 다 함께 수용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OSP(Online Service Provider)의 입장에서 사업을 재 정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본다.

▶인터넷의 활성화와 더불어 PC통신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과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PC통신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은 확실하게 접속시장에서의 상품성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콘텐츠 및 커뮤니티서비스는 오히려 PC통신사업자가 가진 핵심역량으로 재조명될 것이다.

따라서 이 영향의 장점은 만일 PC통신사업자가 OSP로서 변신에 성공한다면 이용자에게 초고속망의 인터넷접속환경에서 보다 유용한 양질의 콘텐츠 및 커뮤니티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고 접속부문의 서비스는 망사업자가 담당하게 되어 역할이 명확해지는 점일 것이다.

단점으로는 여태까지 접속서비스와 콘텐츠서비스를 결합하여 이용자는 One Stop Service를 받은 셈인데 이용자입장에서는 두 서비스를 따로 따로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며 그만큼 부담도 늘 것이다.

▶ISP 업체들은 짧은 기간 동안 정보통신 분야에 기여한 공로가 큼니다. 하지만 전화접속으로 인한 속도의 문제 등과 겹쳐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인데 대응방안은?

우선은 초고속망이 전국적인 규모의 서비스가 아직은 안되고 있는 점이나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다소 비싸며 연간계약인 점에서 아직 성능대비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최근 초고속망의 보급활성화로 오히려 전화망접속의 품질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대응방안으로는 현재의 여건에서 경쟁력 있는 부가가치를 계속 발굴해 나가는 것이다.

최근 유니텔이 해외 7개국의 ISP와 제휴하여 각각의 가입자는 어느 곳을 여행하더라도 현지의 전화망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토록 한 것이 한 예가 될 것이다.

같은 처지의 ISP들이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예이다. 이렇게 현재의 여건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나가는 것이 최상의 대응방안이 될 것이나 이를 지원하는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ISP업체들은 최근 정책적인 면에서 여타의 정보통신분야보다 소외되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ISP업체들에게 있어서 정책



왕대열 유니텔 사업본부장

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망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ISP라는 입장은 참으로 어려운 입장이다.

최근 대부분의 PC통신사업자들이 초고속망사업자와 결합상품을 만든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초고속망보급사업을 기존의 ISP들에게도 참여토록한다든지 초고속망사업자와의 결합상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배타적인 결합을 지양하는 일정 규칙을 만들어 주는 등의 정책적인 배려가 아쉽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개인의 경영철학이나 인재관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경영철학이라면 본질에 충실하자는 점이다. 때론 유연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모든 일은 정도로 돌아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재관이라면 자기철학이 있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즐겁다. 이는 자신의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어 끊임 없는 자기발전의 동기부여로 스스로 일을 찾아하는 사람들이다.

유니텔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점이 다른 무엇보다도 행복하다.